

1. 위밍 업

2007년도 6월 세 번째 주 개봉 영화 순위 중 1위는 단연 <슈렉 3>이다. 2001년 처음 선보인 <슈렉>은 세계 각지에서 사랑받고 있는 애니메이션이다. <슈렉>의 인기는 기존 전래 동화의 문법을 전복해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 냈다는 평가와 관련 있다. <슈렉>은 기존 전래 동화 문법을 반복한 디즈니사 작품들과 다르다. <슈렉>에는 잘생긴 왕자도 왕자가 구해준 아름다운 공주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슈렉>은 아동보다도 전래 동화에 익숙한 성인 관객에게 훨씬 더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전래 동화란 아이들에게 편견과 선입관을 길러주고, 악영향만 끼치는 것일까? <슈렉>과 그 이전의 전래 동화를 비교해 보고 각각의 장단점 및 교육적 효용에 관해 논의해보자.

2. <슈렉> 뜯어보기

<슈렉>의 첫 장면은 이렇게 시작된다. “먼 먼 아주 먼 옛날 괴물이 살았더래요.”라고 말이다. 이 시작은 “아주 먼 옛날 공주 혹은 왕자가 살았더래요.”라는 전래 동화의 관습을 뒤엎는다. 도발을 증명하듯 <슈렉>의 주인공은 못생긴 괴물이고 구해야 할 공주는 잠든 척 하는 말괄량이다. 공주의 아름다운 외모는 태양의 축복일 뿐, 해가 지고 나면 그녀 역시 못생긴 괴물로 돌변한다. 단 한 번도 전래 동화의 주인공이 된 적이 없었던 외톨이 못난이들, <슈렉>은 시작부터 전래 동화의 전통을 겨냥하고 있다.

<슈렉>은 전래 동화의 전통을 클리셰로 부르며 그것을 거부하고자 한다.¹ 원래는 훌륭한 경구였던 것이 점차 남용됨에 따라 진부한 표현이 되듯이 전통은 오래된 습관이 되기 쉽다. <슈렉>이 공격한 전래 동화의 전통도 그렇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왕자 혹은 공주가 등장한다. 그리고 대부분 그들은 뛰어난 미모나 재주를 지니고 있다. 훌륭한 가문에 빼어난 외모를 지닌 그들은 1%의 선택받은 소수라고 할 수 있다. 디즈니가 영화화하고 만화화 한 전래 동화들은 대부분 이 관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곧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될 수 없는 동화적 구성의 한계를 내포한다.

¹ 클리셰:

<슈렉>이 도전하는 디즈니 만화의 전통은 바로 그 한계와 맞닿아 있다. 수려한 외모와 훌륭한 집안 배경을 지닌 왕자나 공주로 시작되던 이야기를 못생기고 냄새나고 더러운 괴물로 바꿔 놓은 것은 의도적 선택이라는 뜻이다. <슈렉>이 전래 동화를 전복하고자 한다는 사실은 몇몇 장면에서 충분히 입증된다. 백설 공주, 신데렐라와 같은 동화 속 공주들은 남자를 차지하기 위해 몸싸움도 불사한다. 한술 더 떠 왕자들은 음모와 협잡을 꾸며내는 사기꾼에 불과하다. 아름다운 공주와 용감한 왕자의 결합으로 귀결되는 전래 동화 속 공식은 <슈렉> 속에서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다. <슈렉>은 지극히 현실적인 동화 공간인 셈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전통을 거부하는 영화 <슈렉>이 선택한 무기가 바로 "웃음"이라는 사실이다. <슈렉>은 환상 속의 전통적 동화 공간을 현실적이며 동시대적인 "코드"의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다. 코드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동시대의 같은 문화권에서 소통되는 인식의 공감대라고 할 수 있다. 가령, 한국 문화에서 "운전해"라는 용어는 단순한 명령어가 아닌 웃음을 유발하는 코드어이다. 유명한 개그 프로그램의 유행어를 알고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웃음은 공유된다. 만일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인일지라도 티브이 프로그램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 코드는 소용이 없다. 피오나 공주가 360도 회전을 하며 현란한 발차기를 할 때 관객들은 웃음을 터뜨린다. 이 웃음은 두 가지 필요조건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1999년작 <매트릭스>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화 속 공주들은 늘 얌전하고 조용한 규수들이라는 사실이다.

<매트릭스>를 차용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슈렉>의 웃음은 주로 하위 문화에서 비롯되었다. 힙합, 대중 가요, 상업 영화 등 헐리웃 영화와 빌보드 차트의 개념들이 <슈렉>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인공 "슈렉"이 예의범절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물이라는 점 역시 그렇다. <슈렉>은 주인공의 그러한 면을 자유 분방하고 꾸밈 없는 자연인의 모습으로 제시한다. 아무데서나 방귀를 끼고 잘 씻지도 않는다. 이 사회에서는 낙오자의 표식이 될 법한 것들이 영화 속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개성으로 뒤바뀐다.

<슈렉>의 웃음은 익숙한 관습에 대한 위배로부터 비롯된다. 일상을 억압하는 권위와 질서, 법칙이나 에티켓을 거부하는 존재, 그가 바로 슈렉이다. 그런 점에서 애니메이션 <슈렉>은 거친 입담과 재주를 통해 관객을 웃게 만들던 해학적 서민 놀이패들과 닮아 있기도 하다. 못생긴 공주, 시기 질투 투성이인 캐릭터들은 전래 동화의 엄숙성을 거부한다. 원작이 있을 경우 그 원작의 충분히 알려진 코드를 비꼬으로써 웃음과 비판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을 꽤로 디라고 부른다. <슈렉>은 이러한 측면에서 전래 동화의 재발견이자 패로디임에 분명하다.

3. <슈렉> 다시 보기

그렇다면 이쯤에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져보자. 과연 <슈렉>이 부정하고 비꼬고 있는 전래 동화는 버려야 할 이데올로기에 불과할까? 그리고 <슈렉>이 내세우는 하위 문화는 해학과 농담을 통해 기존 질서를 위협하던 건전한 전복성을 가지고 있을까? 혹시 <슈렉>이 권위나 전통이 아닌 다른 이데올로기를 은근히 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마지막 질문부터 대답을 해보자. <슈렉>이 패러디하고 있는 작품 및 대상들은 모두 헐리웃 영화나 빌보드 차트에서 차용되고 있다. <매트릭스>나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같은 인물들은 매우 미국적이면서 한편 상업적인 이름들이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이름들을 모를 때 <슈렉>이 선사하는 웃음의 질이 대폭 달라진다는 사실이다. 좀 더 솔직히 말하자면 헐리웃 문화나 블록 버스터에 대해 모른다면 <슈렉>은 그저 그런 영화로 받아들여질 것이 뻔하다.

이러한 점은 영화의 속편인 2편에 이르러 훨씬 더 극명해진다. 결혼한 후 "겁나 먼 왕국"으로 돌아오는 슈렉 부부는 기나긴 여정을 거쳐 드디어 왕국의 입구에 도착하게 된다. 왕국의 입구는 영화 <프리티 우먼>의 한 장면으로도 기억되는 헐리웃의 명품거리이다. "베르사체", "샤넬", "베스킨 라빈스"와 같은 전지구적 대기업 혹은 명품의 이름들이 이니셜 한 두 개가 바뀌어 재현되어 있다. 전통을 거부하고 인습을 전복하던 슈렉이 자본이 최우선이 되는 헐리웃 거리 속을 걸어가는 것이다.

<슈렉>이 거부했던 전래 동화나 디즈니사의 만화 영화들은 정상 가족에 대한 케케묵은 이데올로기를 담고 있다. 여자는 꼭 결혼해야 하고 게다가 멋진 남자를 기다려야만 한다. 결혼하면 아이들을 낳아 잘 키워야 하고 왕자나 공주와도 같다는 환상도 주어야 한다. 전래 동화나 디즈니 만화 영화들은 결혼으로 귀결되는 연애를 정답으로 제시한다. 아름다운 결혼에는 동성애자도 가난한 자들도 끼어들 틈이 없다.

하지만 그것을 거부한 <슈렉>의 공간에는 미남 기사, 미녀 공주는 없지만 나머지 구도는 유효하다. 왕권 계승이 문제가 되고 지위나 재산도 큰 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헐리웃 문화에 대한 관심사가 없으면 영화를 이해하는 것조차도 힘들어 보인다. 유명한 티브이 뉴스 진행자가 누구의 목소리를 맡고 오스카상 시상식을 패로디한 레드카펫이 연출된다. 모든 패로디가 헐리웃의 상업 영화에서 시작해 거기서 끝난다.

좀 더 심각한 문제는 <슈렉>이 전래 동화의 깊은 뜻을 왜곡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오래된 전래 동화 속에는 인류가 대물려 온 지혜가 담겨 있다. 독일의 아동 정신 분석학자인 부르노 베텔하임의 <옛 이야기의 매력>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대개 전래 동화는 금기와 그것을 위반했을 때의 결과로 진행된다. 이를 테면 이런 식이다. 20살이 되기까지 절대 올라가서는 안 될 옥탑이 있다. 그곳에는 오래된 물레가 있는 데 공주가 20살이 되기 전에 그 곳에 올라가 물레를 손댔 경우 공주를 비롯해 성의 모든 사람들이 100년간 잠이 들게 된다. 모든 금기는 깨지기 마련임을 증명 하듯 공주는 꼭 20살 이전에 그곳에 가 물레에 손을 댄다. 성은 잠에 빠지고 시간은 정지된다. 그녀와 성을 깨우는 것은 왕자의 입맞춤, 그 이후 성은 되살아나고 공주와 왕자는 결혼해 행복한 여생을 보내게 된다.

이 이야기는 적당한 시기에 이르기 전의 성적 접촉이 결국 아이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암시적 형태로 전달하고 있다. 100년 동안의 수면이 상징하는 것은 호기심만큼 성장해야 할 정신적 깊이이다. 몸이 어른이 된다 할지라도 타인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 데에는 적당한 성숙과 훈련이 필요하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암시와 훈련, 그것이 곧 전래 동화의 중요한 효능이다. 중요한 것은 전래 동화가 이러한 교육을 직설적 계몽이 아닌 간접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야기를 통해 어른의 경험은 무리 없이 전달된다.

전래 동화들이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는 까닭도 이와 관련된다. 전래 동화들은 어른이 된다는 것, 성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 담론들을 형성해준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슈렉>은 아이들보다는 어른에게 적합한, 성인용 동화라고 할 수 있다. <매트릭스>와 같은 동시대의 문화 아이템에 대한 패로디도 그렇다. 코드를 알고 그 코드의 의미를 내재화한 어른에게 <슈렉>은 훌륭한 도발이고 재미있는 패로디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전래 동화의 관습이 더 요긴할 지도 모른다. 전래 동화에는 생각보다 깊은 의미와 가르침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더 생각해볼 문제>

1. 왜 전래 동화들은 금기의 제시로 시작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추측해본다.
2. <슈렉> 시리즈의 즐거움과 전래 동화가 주는 즐거움을 비교해본다.
3. 패로디의 의미에 대해 조사해본다.
4. 그렇다면 과연 영화 <슈렉>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일까?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중 하나를 선택해 자신의 입장을 제시해 보자.

디즈니의 만화 영화들은 <슈렉>에 의해 보수적 가족 이데올로기의 온상으로 비판받고는 했다. <슈렉>이 비판한 디즈니 만화 영화들은 몇 가지 공식들을 지니고 있다. 가령, 아름다운 공주가 등장한다. 공주들은 어떤 사건에 의해 곤란에 처하게 된다. 우연히 왕자들이 곤경에 처한 공주들을 돕는다. 그리고 왕자와 공주는 행복하게 살아간다. <슈렉>이 공격하고 있는 디즈니 만화 영화들의 이데올로기는 "아름다운 공주"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문구 가운데에 있다. <슈렉> 이후 디즈니 작품들을 새롭게 조명한 영화들이 속속 등장하는 것도 이와 연관된 것 일 테다. 그렇다면 과연 디즈니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이고 또 한편 디즈니 만화 영화들이 원작으로 삼고 있는 전래동화들은 위험한 것일까?

<남극일기>를 연출했던 임필성 감독은 2007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작품을 선보였다. 그림 형제가 수집한 독일 동화 <헨젤과 그레텔>은 동화라고 하기에는 끔찍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알고 있다 시피 <헨젤과 그레텔>은 먹고 살기가 팍팍한 계모가 남매를 버리는 이야기이다. 잔혹함은 남매를 버리는 설정보다는 아이를 오븐에 넣어 구우려했던 마녀 부분에 절정을 이룬다. 임필성 감독이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잔혹성이다.

우리는 대부분 전래 동화들을 디즈니풍의 순화된 방식으로 기억한다. 유명한 디즈니 만화 영화 중 하나인 <신데렐라>만 봐도 그렇다. 만화 영화 속에서 <신데렐라>는 착하게 사는 소녀의 사필귀정으로 그려져 있다. 계모와 배다른 언니들의 꾀박과 계략에도 불구하고 신데렐라는 착한 마음씨로 왕자를 배필로 얻게 된다. 구박을 참고 견뎌왔던 신데렐라의 선행이 계급의 상승이라는 결과물로 보상된 것이다. 우리는 <신데렐라>를 "그래서 두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문장의 대명사로 생각한다. 그도 그럴 것이 신데렐라는 불우한 환경을 이겨내고 사회 상류 계층으로 진입한 여성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작 동화 속 <신데렐라>는 잔혹하기 그지 없다. 연회장에 버려진 신발을 들고, 왕자가 여인을 찾는다는 소문이 돌자 신데렐라의 자매들은 그 신발에 자신의 발을 맞추고자 전전긍긍한다. 디즈니 만화 영화 속에서 이 장면은 자매들의 발에는 맞지 않았습시다, 라고 간단히 묘사되지만 실제 동화 속에서는 발가락과 발꿈치가 잘려나가는 잔혹한 장면으로 서술되어 있다.

디즈니 만화 영화들은 아름다운 미인과 미녀 그리고 영원한 사랑의 결과물인 결혼을 전경화한다. <슈렉>은 디즈니 만화 영화가 공공연히 제시하는 정치적 보수성, 가족 이데올로기의

허점을 비꼬는 작품이다. <슈렉>은 디즈니사의 만화 영화들은 정상 가족에 대한 케케묵은 이데올로기를 부정한다. <슈렉>을 통해 멋진 남자를 기다리는 공주는 내숭덩어리로 격하되고 미남, 미녀의 결합은 괴물 주인공으로 인해 부정된다. 디즈니 만화 영화들은 결혼으로 귀결되는 연애를 정답으로 제시한다. 아름다운 결혼에는 동성애자도 가난한 자들도 끼어들 틈이 없다.

물론 <슈렉>이 제시하는 대안들은 우리가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는 편견의 폭력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문제는 디즈니 만화 영화들이 원작으로 삼고 있는 것이 대부분 전래 동화라는 사실이다. 전래 동화들은 디즈니 만화 영화와 달리 성장에 대한 사려 깊은 조언들을 담고 있다.

대개 전래 동화는 금기와 그것을 위반했을 때의 결과로 진행된다. 이를 테면 이런 식이다. 20살이 되기까지 절대 올라가서는 안 될 옥탑이 있다. 그곳에는 오래된 물레가 있는 데 공주가 20살이 되기 전에 그 곳에 올라가 물레를 손댔 경우 공주를 비롯해 성의 모든 사람들이 100년간 잠이 들게 된다. 모든 금기는 깨지기 마련임을 증명 하듯 공주는 꼭 20살 이전에 그곳에 가 물레에 손을 댄다. 성은 잠에 빠지고 시간은 정지된다. 그녀와 성을 깨우는 것은 왕자의 입맞춤, 그 이후 성은 되살아나고 공주와 왕자는 결혼해 행복한 여생을 보내게 된다.

이 이야기는 적당한 시기에 이르기 전의 성적 접촉이 결국 아이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암시적 형태로 전달하고 있다. 100년 동안의 수면이 상징하는 것은 호기심만큼 성장해야 할 정신적 깊이이다. 몸이 어른이 된다 할지라도 타인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 데에는 적당한 성숙과 훈련이 필요하다.

전래 동화들이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는 까닭도 이와 관련된다. 전래 동화들은 어른이 된다는 것, 성인이 된다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 담론들을 형성해준다. 전래 동화에는 생각보다 깊은 의미와 가르침이 담겨 있다.

1. <마법에 걸린 사랑>은 디즈니사 작품임에도 디즈니 만화 영화의 문법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한다.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 분석하고 그 의의도 생각해 보자.

2. <헨젤과 그레텔>은 부모로부터 멀어지고 싶어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동화라고 이야기 되기도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하고 토론해보자.

3. <슈렉>의 장점과 단점을 나눠서 열거해보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과 토론해보자.